

# 에볼라 공포와 고통 앞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유경동\_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필자가 '에볼라'로 고통당하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환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지구촌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는 자연을 훼손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연의 보복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60%에 달하는 일종의 아프리카 풍토병인 중증 전염병으로서 이제는 아프리카 중심부를 넘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피어볼라'(Fearbola: Fear+Ebola)가 되었다. 에볼라가 피어볼라로 불리는 이유는 질병이란 단지 인간의 육신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습격한다는 점이다. 즉 인간의 몸을 통한 질병은 전염과 동시에 정신도 집단적으로 쇠약하게 하여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볼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육체와 정신적 힘이 겸비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질병이 창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천연두가 아테네 문명을 몰락시켰다고 하며, 중세의 유럽에는 페스트가 휩쓸었다. 의학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전염병(역병)은 대부분 동물들로부터 인간에게 넘어온 질병이 원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수(人獸)공동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로부터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없으면, 인간은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몰살까지 되는 것이다. 가금류나 돼지, 말, 소, 개, 쥐 등으로부터 감염되면, 면역력이 없는 인간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근래 한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인 돼지

독감도 인수 양자를 넘나들어 인간에게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막을 수 없는 공포의 전염병이 되었던 것이다. 에볼라의 경우도 질병의 원인이 과일박주로 알려지면서, 결국 인수공통전염병의 예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염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를 무리하게 변화시킬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자연의 파괴, 대량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생화학전, 그리고 국제 소비를 명목으로 동물의 부산물을 가공하여 동물이 먹게 하는 생태피라미드의 파괴 이후에 돌아오는 질병의 책임과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안긴다. 인간이 문명의 발전을 앞세워 저지른 어두운 그림자 속에는 특히 이종(異種)간의 무질서를 초래하며, 이종 간의 바이러스 전염은 결국 공생으로 살아가야 할 자연 생태계가 아니라 인류를 꺾멸할 수 있는 파괴로 치닫는 것이다.

### 질병과 생체권력 사이에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역사 속에서 의학을 발전시켜왔다. 병과의 투쟁을 통하여 인류문명은 과거의 치료의학에서 점차 현대의 예방의학으로 발전할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과 자본이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증상주의가 개입하여 '생체권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약의 정치'(Pharmacacy)를 통하여 인간의 질병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뉘지면서 돈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한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는 DNA 유형과 RNA 유형이 있다고 한다. DNA 유형은 핵심구조가 잘 변하지 않아서 치료약인 백신 개발이 수월하지만, RNA 유형은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신약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에볼라는 RNA 유형이지만 실험실에서 그 유형을 DNA 타입으로 바꾸어서 치료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제3세계의 일부 국가에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인가! 비근한 예로 에이즈도 RNA 유형의 질병이지만, 이제는 많은 대체 약이 개발되었다. 이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걸린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제약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씩씩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예로 필자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첫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가 순산한 후 겪은 일이다. 병실에 돌아와 아기가 아내 품에 안기자마자 간호사가 선물이라며 큰 박스를 침대 옆에 내려 놓았다. 어찌 된 선물이냐고 물으니 우유회사에서 보낸 선물이란다.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각종 유제품 회사에서 보낸 우유 통조림들이 한 가득 있었다. 간호사는 나를 보더니, 모유와 큰 차이가 없는 좋은 제품이니 아이에게 좋고 엄마도 산후조리에 좋으니 계속 먹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산모의 몸매 관리에도 최고라고 부추기면서 말이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다. 원하지 않는 우유를 무의식 가운데 먹으면서 한 인간의 생명은 회사의 제품에 지배당한다. 끊임없이 인간을 세뇌하는 제약회사의 광고는 거의 막을 수 없는 바이러스 수준이다. “만일 이 약을 당신이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의 몸을 둘러싸고 벌이는 질병도 같은 맥락에서 예외는 아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만일 이러한 질병이 서구에서 발생하였다면,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제약회사가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만한 ‘수익성 바이러스’가 되기 위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많은 구매자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신약을 살만한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한다면, 결국 인간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과 싸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물론 제약회사가 ‘산타클로스’는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정신과 철학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한 것이다.

## 병과 약 중 누가 더 잔인한가?

병과 약이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하다가 약이 이겼다. 병은 병든 사람만 거꾸러뜨렸지만, 약은 병들지 않은 사람도 죽였다. 병은 환자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였지만, 약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다시 살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위의 글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에서 “평화와 전쟁이 누가 더 잔인한가 경쟁하다가 평화가 이겼다”고 정의한 내용을 필자가 바꾸어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은 무장한 군사들만 거꾸러뜨렸지만, 평화는 비무장한 사람들마저 살해하였고, 전쟁은 공격당한 사람에게 가능한 한 반격의 기회를 주었지만, 평화는 살



서아프리카 시에라 리온의 에볼라 환자와 그를 치료하는 국제의료기구의 의료진들

아담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저항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죽음을 수여했다고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소위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대부분 허구라는 것이다. 질병과 관련하여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대중을 기만하는 생체권력의 이면에는 생명존중이 아니라 생명의 파괴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고 자본의 논리로 에볼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즉 질병은 지역주의와 인종주의를 넘어서는 범인류적이고 사해적인 문명의 가치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은 인간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며, 인간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구조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하나이다!” 역설적이지만 병은 인간에게 편견이 없지만 인간은 병에 편견을 가진다. 질병 자체에 인종과 성, 자본과 오만한 편견을 뒤집어씌우면서 인간은 질병보다 더 잔인하게 인간을 방치하고 죽음으로 내몬다. 병은 인간이 면역체계를 가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러나 인간은 그 면역체계를 가질 수 있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돈으로 구별한다.

에볼라가 과연 아프리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중보건의 차원에서 흑시 세계의 허울 좋은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개발을 명목으로 벌이는 세계화로 벌어진 생태파괴가 그 원인은 아닐까? 혹은 에볼라의 공포가 세계를 휩쓰는 현실에서 결국 치료제를 개발할 의학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체권력이 그 치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이 치료제를 개발하여야 하지만, 결국 치료제가 치료할 인간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질병이 인간의 생태파괴로 기인하였으며, 결국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돌아온 자연의 보복을 이길 대안조차도 인간은 아직 돈과 자본의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안은 무엇인가? 필자의 관점에서 그것은 인간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며, 아울러 질병과 같은 고통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정신에 있다고 본다. 과학 기술은 있지만 생명존중은 점점 퇴색하였고, 세계화를 앞세워 상품의 유통은 앞세우지만 정작 죽어가는 인간의 몸을 살릴 사해 정신은 결코 나누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각성과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생명이란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나 이 기간 동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질병에 연관된 인간 '생명의 문제는 단지 의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윤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과 같은 생태 위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계 문명의 윤리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영적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리적 관점은 미래를 설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실 있는 행위를 할 동기를 불러넣는 데에 중요하며, 영적 관점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보다 차원 높은 정신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에볼라와 같은 질병에 대한 생태학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간의 몸을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인간에게 있는 생명의 현상을 깊게 이해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구의 자연 환경과 조화되는 삶의 방식을 확립할 수 있게 해 주는 결단과 행위를 요청하는 생태학적 각성이 필요한 것이다.

###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

인간의 몸에서 중심은 어디인가? 사람에게 따라서 머리, 가슴, 배, 다리 등 자신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몸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여 보자.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 아닐까? 우리는 손톱 끝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하루 종일 온 몸이 고통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눈에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절절 때며 더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질병은 때로 한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해지며, 심지어 한 지도자의 병은 기업과 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의 질병은 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인간의 건강은 공동체적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를 통한 연대를 통하여 질병을 정신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몸을 비유적으로 볼 때 지구의 중심은 어디인가? 만일 앞의 논리가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아픈 곳'이다. 이제 전 세계의 국가와 성원들은 마치 몸의 세포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하나 밖에 없는 지구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라면, 지구의 중심도 '아픈 곳'이다. 이 아픈 곳의 치유를 위하여 온 몸이 함께 고통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고통당하는 지역과 가족이 있다면, 우리도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함께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밖에 없는 몸을 살려야 인간이 살듯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려야 우리 인류가 살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으로 질병을 퇴치해야 하며, 미래의 후손들을 위하여 건강한 지구를 선물로 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다.

###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성서에서 밝히는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아픈 곳'에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소리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죄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아들을 잃어 슬픔에 떠는 여인들 속에, 공동체에서 쫓겨나 숨어 지내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인간을 방치하지 아니



하시고 심지어 그 고통의 원인인 인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픈 곳’에 오셔서 스스로 그 고통과 고난의 짐을 지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은 단지 육체의 고통이 아닌, 생명의 현상 중의 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로 귀속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유지가 된다.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생명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생명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영생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경험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육체적 삶과 행동 전체를 지속적인 성화로 이끌어나가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육욕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영적 도구가 된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사회 속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영적 운동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나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우리와 화해하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엡 2:14) 따라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사랑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질병도 인간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치유를 통하여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질병의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받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생명 나눔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철저히 내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주님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아나셨으며, 육의 몸을 통하여 영의 몸이 있음을 보여주셨다.(고전 15:44)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에볼라와 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인간이 무엇인가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돈과 권력을 탐한 그 대가의 책임에 대하여 깊은 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아픈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신적 행위’를 따를 수 있다. 에볼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연약한 지체가 새 힘을 얻고, 육체의 고통이 새 생명을 향한 영적 에너지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약하지만, 결국 더 강한 부활공동체로서의 영적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삼위일체의 흔적’(vestigia trinitatis)을 발견한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오셔서 생명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의 죄를 감당하신 인류를 위한 구원계획에 제자들로서 초대받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차별과 편견을 넘어 당신의 식탁에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요청하셨다. 그 자리에 에볼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 순례의 길에 함께 있는 인간임을 고백할 때, 부활의 몸이 약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에볼라의 공포를 이기고 부활의 몸을 기도하여야 한다. 질병과 같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 상생의 정신으로 문명을 이끌고 생명의 문으로 함께 나아가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의 위기를 극복할 신앙이며 우리가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넘겨주어야 할 정신문명의 유산이다. **기상**

**유경동** | 교수는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기독교윤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